

동방신기, 日팬미팅 취소.."웃는 얼굴로 볼 수 없어"

남안우 · 입력 2009. 12. 12. 10:30 · 수정 2009. 12. 12. 10:30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동방신기가 예정된 일본 팬미팅을 취소했다. 동방신기는 11일 밤 일본 팬클럽인 비기스트(Bigeast) 회원을 상대로 "한국 내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행사에 관해 멤버를 포함해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이벤트 중지를 결정했다"며 'Bigeast 4th FANCLUB EVENT'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당초 동방신기는 내년 1월 19일과 20일 일본 고베 월드기념홀을 시작으로 27일 센다이 핫 슈퍼 아레나, 30일과 31일 요코하마 아레나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팬미팅을 열 계획이었다. 팬미팅 입장권은 모두 다 팔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팬클럽 측도 "평소 동방신기를 따뜻하게 지켜주신 팬들에게 거듭 죄송하다. 계속해서 5명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방신기는 이어 사과문을 발표 "어떤 상황에서든 프로로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비기스트 여러분 앞에 솔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역시 진정한 웃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무대에 서는 것은 팬들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중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는 "마음을 정리해 다시 여러분과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다. 정말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일본 팬미팅을 전격 취소한 동방신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